국어 독서 · 개념 이해·적용 학습지

독서 종합 적용01

한 지문에서 여러 개념 연결하기

대치동 재우쌤

이 학습지의 구성

묶음	함께 연결할 개념	질문	문항
1. 사진 기록 읽기	중심 내용·지시어·정보의 구별·근거 부족	01~02	01~06
2. 분류 장치의 규칙	조건·과정·우선순위·표와 계산	03~04	07~12
3. 공간 운영의 근거	주장·조사 범위·인과·평가	05~06	13~18
4. 전시 자료의 공개	정의·관점·반례·새 사례 적용	07~08	19~24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묶음 1 사진 기록 읽기

용어 약속

용어	뜻
화제	글에서 다루는 대상
중심 내용	화제에 관해 글쓴이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
지시어	앞뒤의 대상이나 내용을 가리키는 말
근거 부족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을 확정할 수 없음. 판정할 때는 ?(글만으로는 알 수 없음)로 나타냄

연결 개념 독서01 「글과 문단의 핵심」 · 독서02 「문장과 정보의 연결」 · 독서06 「사실 확인과 추론」.

질문 01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 날짜에 그 일이 있었다고 보면 되나요?

> **핵심 답** **날짜가 보이면 먼저 '무엇을 한 날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도서관 책 한 권의 뒤쪽 판권에는 '2015년 발행', 대출 기록에는 '2023년 5월 대출'이라고 적혀 있다. 친구는 대출 기록을 보고 "2023년에 나온 새 책이네."라고 말했다.

구조 보기

날짜	무엇을 한 날짜인가?	이 날짜만으로 알 수 없는 것
2015년	책을 펴냄	누가 언제 빌렸는지
2023년 5월	책을 빌림	책이 언제 나왔는지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 늦게 빌린 책이니 새 책이다.

바른 판단 '2023년 5월 대출'은 빌린 날짜다. 늦게 빌린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일 수도 있다.

질문 02 ‘이것’을 앞의 낱말 하나로 바꾸면 항상 뜻이 통하나요?

> **핵심 답** 지시어는 낱말 하나뿐 아니라 앞 문장의 행동이나 판단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비유로 보기

사진에서 한 물건만 오려 낼 수도 있고 여러 물건이 놓인 장면 전체를 담을 수도 있듯, 지시어가 가리키는 범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가리키는 범위가 좁거나 넓을 수 있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실제 범위는 앞뒤 문장에 넣어 뜻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모둠은 완성품만 전시하지 않고 실패한 시제품도 함께 놓았다. 이것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을 고쳤는지 보여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구조 보기

‘이것’을 바꾸어 읽은 말	문맥과 맞는가?
실패한 시제품이라는 물건	물건 자체를 ‘선택’이라고 하는 셈이어서 뜻이 이어지지 않음
완성품과 실패한 시제품을 함께 전시한 일	제작 과정을 보여 주려는 ‘선택’과 이어짐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 ‘이것’ 바로 앞에 시제품이 나오므로 시제품만 가리킨다.

바른 판단 뒤의 ‘선택이었다’를 보면 ‘실패한 시제품도 함께 놓았다’는 전시 방식을 가리킨다.

지문 A · 마을 사진 전시

[가] 마을 전시팀은 옛 사진을 모아 마을의 변화를 보여 주려 했다. 사진 봉투에는 여러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은 시기와 전시팀이 사진을 받아 모은 시기는 같지 않을 수 있다. 뒤늦게 받은 사진이 더 오래전에 찍힌 사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시팀은 사진 설명 카드에 두 시기를 따로 적기로 했다.

[나] 사진 가에는 촬영자가 적은 촬영 시기 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진 나는 받아 모은 시기만 기록되어 있었다. 사진 나의 촬영 시기를 알려 주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다. 전시팀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촬영 시기	전시팀이 받아 모은 시기	사진 속 다리의 재료
가	1998년 봄	2011년 3월	돌
나	확인되지 않음	2003년 9월	나무



[다] 한 관람객은 “사진 나의 다리는 나무로 되었으니 사진 가보다 먼저 찍혔겠군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시팀은 두 사진이 같은 다리를 찍었는지조차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다리의 재료만으로 두 사진의 촬영 순서를 정할 수도 없었다. 전시팀은 촬영 시기를 확인한 사진만 시간 순서대로 놓고, 확인하지 못한 사진은 별도 구역에 전시하기로 했다.

[라] 전시팀은 사진에 직접 보이는 모습과 다른 기록을 연결하여 알아낸 내용을 설명 카드에서 구별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나무로 되었다는 것은 사진 나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다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사진만으로 알 수 없다. 이 구별은 보이는 모습에서 확인되지 않은 역사까지 단정하는 일을 줄여 준다. 사진을 전시할 때에는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 함께 밝혀야 한다.

01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옛 사진은 다리의 재료가 바뀐 순서대로 전시해야 한다.

② 사진에 관한 날짜와 정보가 무엇의 날짜인지, 어디서 확인한 것인지 구별하고, 확인하지 못한 점도 밝혀야 한다.

③ 받아 모은 시기가 확인된 사진은 모두 촬영 순서를 정할 수 있다.

④ 사진은 기록보다 정확하므로 사진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역사를 설명해야 한다.

02 **[나]의 표와 글이 뒷받침하는 내용은?**

① 사진 나는 2003년 9월에 촬영되었다.

② 사진 나는 사진 가와 같은 다리를 찍은 사진이다.

③ 사진 가는 사진 나보다 먼저 전시팀에 들어왔다.

④ 사진 가의 촬영 시기는 전시팀이 받아 모은 시기보다 앞선다.

03 **[라]의 '이 구별'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한 것인지 [라]에서 찾아 쓰세요.**

답 _____ 과/와

_____ 의 구별

04 **윗글의 전개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날짜를 혼동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표와 관람객의 말을 사례로 들어 구별의 기준을 설명한다.

② 관람객과 전시팀의 대립하는 견해를 소개한 뒤 두 견해를 절충한 방안을 제시한다.

③ 마을 다리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④ 관람객의 주장을 받아들여 나무다리 사진을 먼저 전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05

보기

전시팀이 사진 다를 새로 받았다. 받아 모은 날짜는 2020년 6월로 확인되지만 촬영 시기는 알 수 없다. 사진 속 다리가 사진 가의 다리와 같은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에 제시된 전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받아 모은 날짜를 촬영 날짜로 삼아 2020년 사진들과 함께 놓는다.

② 가장 늦게 받았으므로 시간 순서 전시의 맨 뒤에 놓는다.

③ 촬영 시기를 확인하지 못한 사진을 모아 둔 별도 구역에 놓는다.

④ 사진 가와 같은 때 찍혔다고 설명 카드에 적는다.

06

[나]~[다]를 근거로 각 판단을 ○·×·?로 표시하세요. ○ 글로 확인됨 · × 글과 어긋남 · ? 글만으로는 알 수 없음

판단	기호
㉠ 사진 가는 시간 순서대로 놓는 구역에 전시된다.	
㉡ 사진 나의 다리는 사진 가의 다리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 전시팀은 두 사진이 같은 다리를 찍었다고 확인했다.	

묶음 2 분류 장치의 규칙

용어 약속

용어	뜻
적용 조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내용
우선순위	여러 조건을 확인할 때 먼저 적용하기로 한 순서
과정	일이 진행되는 단계와 순서를 밝히는 설명 방법
총시간	정해진 시작부터 끝까지 걸린 전체 시간

연결 개념 독서03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 · 독서04 「구조·과정·원리」 · 독서06 「사실 확인과 추론」 · 독서08 「선택지 판단과 새로운 사례 적용」.

질문 03 조건이 두 개 보이면 내가 원하는 것부터 적용해도 되나요?

> **핵심 답** **먼저 적용할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 순서까지 지켜야 합니다.**

비유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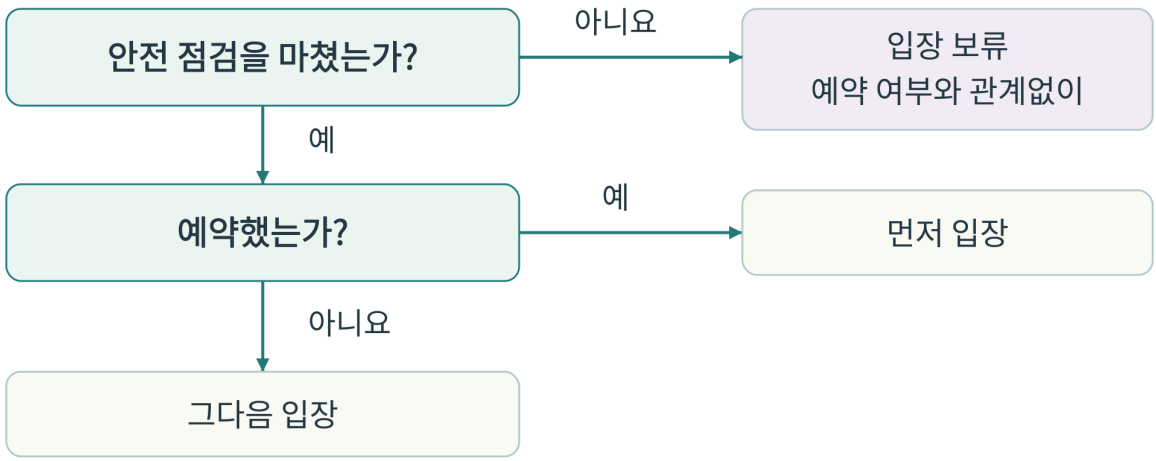
비행기 표가 있어도 보안 검색을 통과하지 못하면 탑승구까지 갈 수 없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는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이 비유는 '먼저 확인하는 조건에서 막히면 뒤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어떤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지는 글마다 다르므로 글에 적힌 규칙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체험실은 먼저 안전 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을 마치지 않았으면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보류한다. 점검을 마쳤으면 예약자를 먼저 입장시킨다.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그다음에 입장시킨다.

구조 보기

먼저 확인하는 조건



→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 예약자이므로 안전 점검 전에도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바른 판단 '점검을 마치지 않았으면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류한다. 예약 규칙으로 앞의 제한을 없앨 수 없다.

질문 04 한 단계의 시간이 줄면 전체 시간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핵심 답 **다른 단계의 시간이 그대로이고 단계가 차례로 진행된다면, 줄어든 만큼 총시간도 줄어듭니다.**

비유로 보기

이어달리기에서 다른 주자의 기록과 교대 시간이 그대로라면, 한 주자가 3초 빨라질 때 팀 기록도 3초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출발하고 마지막 사람이 들어와야 끝나는 경기라면, 한 사람이 빨라져도 기록이 그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계가 '이어지는지, 겹치는지'에 따라 총시간이 달라진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실제 글에서는 단계가 겹치는지, 다른 단계의 시간이 그대로인지를 글의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한 묶음의 전시 카드를 자른 뒤 포장한다. 두 단계는 겹치지 않는다. 종전에는 자르기 6분, 포장 4분이 걸렸다. 새 도구로 자르기는 3분이 되었고 포장 시간은 그대로다.

다른 날에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카드 묶음을 맡았다. 한 사람은 새 카드를 자르고, 다른 사람은 이미 잘라 둔 카드를 포장했다. 두 일을 동시에 시작하고 둘 다 끝나야 그날의 작업이 끝난다. 종전 도구와 새 도구를 쓸 때 각 일에 걸리는 시간은 위와 같다.

구조 보기

차례로 할 때와 동시에 할 때

차례로 진행 · 두 단계가 겹치지 않음

종전: 총 10분



자르기 6분 + 포장 4분 = 10분

새 도구: 총 7분



3분 + 4분 = 7분 · 3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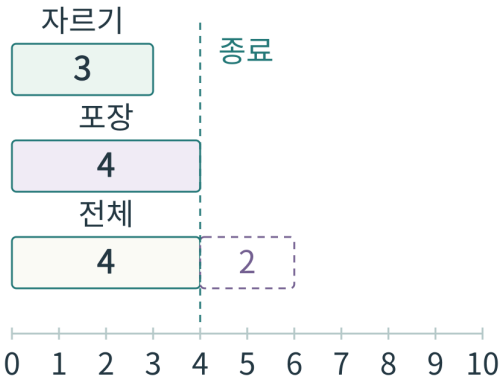
동시에 진행 · 두 일이 모두 끝나면 종료

종전: 총 6분



더 오래 걸리는 자르기가 끝날 때 종료

새 도구: 총 4분



포장이 끝날 때 종료 · 2분 감소

눈금 1칸 = 1분 · 점선 칸 = 종전보다 줄어든 총시간

한 단계의 시간 감소가 총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가 이어지는지·겹치는지에 따라 다르다.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 한 단계가 3분 빨라지면 어떤 작업에서나 총시간이 3분 줄어든다.

바른 판단 ‘두 단계는 겹치지 않는다’면 10분에서 7분으로 줄지만, ‘동시에 시작하고 둘 다 끝나야’ 한다면 6분에서 4분으로 줄어든다.

지문 B · 도구 반납 장치

[가] 체험관은 반납된 도구를 세 곳으로 보내는 장치를 시험하고 있다. 장치는 도구에 붙은 번호와 예약 표시를 읽는다. 여기서 예약 표시는 다음 이용자의 예약이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며, 그 사람이 이미 체험관에 도착했다는 뜻은 아니다. 장치는 사람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나] 장치는 먼저 도구 번호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번호를 읽을 수 없으면 예약 표시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토대로 보낸다. 번호를 읽을 수 있을 때에만 예약 표시를 확인한다. 예약 표시가 있으면 예약 칸, 없으면 일반 칸으로 보낸다. 검토대에서는 직원이 번호를 다시 확인한다. 번호를 읽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도구를 버리지는 않는다.

[다] 도구 한 개를 처리할 때 판독에 8초가 걸린다. 그 뒤 일반 칸까지 옮기는 데에는 12초, 예약 칸까지는 20초, 검토대까지는 6초가 걸린다. 여기서 처리 시간은 판독 시작부터 해당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이며, 판독과 이동은 겹치지 않는다. 직원이 검토대에서 따로 확인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오늘 반납된 도구 X·Y·Z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도구	번호 판독	예약 표시
X	가능	없음
Y	가능	있음
Z	불가능	있음

[라] 도구가 예약 칸에 도착하면 감지기가 안내 화면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는 도구의 도착을 알릴 뿐, 다음 이용자의 도착을 알리지 않는다. 현재 장치는 도구 한 개의 판독과 이동을 끝낸 뒤 다음 도구를 처리한다. 앞 도구가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도구의 판독을 시작한다. 운영팀은 판독 시간을 줄이는 새 장치를 제안받았지만, 아직 시험하지 않았다.



07 **윗글의 설명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번호와 예약 표시를 동시에 판단하여 예약 표시가 있는 도구를 모두 예약 칸으로 보낸다.

② 다음 이용자가 도착한 순서에 따라 도구를 세 곳으로 보낸다.

③ 번호 판독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도착 장소를 정한다.

④ 검토대의 확인 결과를 모두 모은 뒤 세 장소의 이동 시간을 정한다.

08 **X·Y·Z가 각각 도착할 장소를 골라 쓰세요. 고를 말은 여러 번 써도 됩니다.**

고를 말 일반 칸 | 예약 칸 | 검토대

도구	도착할 장소
X	
Y	
Z	

09 **[나]~[다]에 따라 계산한 처리 시간으로 옳은 것은?**

① Z는 판독 시작부터 검토대 도착까지 14초가 걸린다.

② X는 판독 시작부터 일반 칸 도착까지 12초가 걸린다.

③ Y는 판독 시작부터 예약 칸 도착까지 20초가 걸린다.

④ X와 Y의 처리 시간은 같다.

10

보기

오늘 표에 없는 도구 W가 예약 칸에 도착했고, 감지기가 안내 화면으로 신호를 보냈다.

윗글과 〈보기〉만으로 확정할 수 <u>없는</u> 것은?

① W에는 예약 표시가 있다.

② 장치는 W의 번호를 읽을 수 있었다.

③ 신호가 알려 준 것은 W가 예약 칸에 도착했다는 사실이다.

④ W의 다음 이용자는 이미 체험관에 도착했다.

11

보기

새로 반납된 도구 V는 장치가 번호를 읽지 못했다. V에는 예약 표시가 있고, 그 예약을 한 이용자도 이미 체험관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가]·[나]에 따라 장치가 V를 보내는 곳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용자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예약 칸으로 보낸다.

② 예약 표시나 이용자의 도착과 관계없이 검토대로 보낸다.

③ 번호를 읽지 못했으므로 폐기한다.

④ 예약 표시를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 칸으로 보낸다.

12

보기

판독 시간만 4초로 줄였다고 가정하자. 이동 시간과 분류 규칙은 그대로이고, 판독과 이동은 겹치지 않는다. 이 조건에서 X를 처리하고 이어서 Z를 처리한다.

X의 판독을 시작한 때부터 Z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숫자로 쓰세요.

답 _____ 초

묶음 3 공간 운영의 근거

용어 약속

용어	뜻
주장	받아들이도록 내세우는 생각이나 판단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자료
조사 대상	실제로 조사한 사람이나 사물의 범위
타당성	근거가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정도
기준량	비율을 계산할 때 전체로 삼은 양
인과 관계	어떤 일이 다른 일을 일으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연결 개념 독서05 「관점과 논의」 · 독서06 「사실 확인과 추론」 · 독서07 「설명과 주장의 평가」.

질문 05 비율이 높으면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고 해도 되나요?

> **핵심 답** **비율과 함께 실제 응답자 수와 그 응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유로 보기

과일 상자의 맨 위에 놓인 몇 개만 보고 상자 전체의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한쪽에서 고른 응답만으로 전체의 생각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비유는 살펴본 부분이 전체를 잘 보여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과일은 스스로 위로 올라오지 않지만, 설문에서는 답하고 싶은 사람만 스스로 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문에서는 몇 명에게 물었는지와 함께, 누가 답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예문

전시 관람객 100명 가운데 어린이 체험 코너에 온 10명에게만 새 체험을 물었다. 그중 9명이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구조 보기

확인할 것	예문에서 확인되는 내용
실제 응답자	어린이 체험 코너에 온 10명
기준량(비율을 계산할 때 전체로 삼은 양)	90%의 기준량은 응답한 10명
찬성 인원과 비율	9명, 응답자의 90%
바로 확정할 수 없는 내용	관람객 100명 중 90명이 참여를 원함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 찬성이 90%이므로 전체 관람객 100명 중 90명이 찬성했다.

바른 판단 '10명에게만' 물었으므로 90%의 기준량은 그 10명이다. 나머지 관람객의 응답은 없다.

질문 06 바꾼 뒤 좋아졌다면 그 변화가 원인이었다고 해도 되나요?

> **핵심 답** **함께 달라진 조건이 있다면 결과의 변화만으로 특정 원인의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유로 보기

멈춰 있던 수레를 두 사람이 함께 밀었더니 움직였다면, 한 사람만의 힘으로 움직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비유는 결과에 함께 작용한 것이 여럿이면 그중 하나만의 몫을 따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한 조건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다른 조건은 같게 두고 그 조건만 달리한 비교 자료처럼 여러 조건의 영향을 구별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문

연극 모둠은 대본 글자를 크게 바꾼 날부터 연습 시간도 두 배로 늘렸다. 그 뒤 대사를 빠뜨린 횟수가 줄었다.

구조 보기

함께 바뀐 조건	확인된 결과	아직 남은 판단
대본 글자가 커짐 · 연습 시간이 늘어남	대사를 빠뜨린 횟수가 줄어듦	글자 크기만 바꿔도 같은 효과가 나는가?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 글자를 크게 했기 때문에 대사를 빠뜨린 횟수가 줄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바른 판단 ‘연습 시간도 두 배로’ 늘었다. 글자 크기 하나의 효과를 구별하여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지문 C · 점심시간 학습실

[가] 학생 자치회는 점심시간에 쓰는 작은 학습실을 선착순 대신 예약제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논의했다. 제안자는 이용 시간을 미리 정하면 기다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학생은 갑자기 시간이 생긴 학생이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회는 운영 방식을 정하기 전에 학생들의 의견과 시범 운영 결과를 살펴보기로 했다.

[나] 전체 학생 80명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온라인 설문을 열었다. 응답은 자율이었고 20명이 답했다. 예약제에 찬성한 사람은 14명, 반대한 사람은 6명이었다. 응답자는 둘 중 하나만 골랐으며 중복 응답은 없었다. 나머지 60명의 의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치회는 '응답자의 70%가 찬성했다'고 보고했다.

[다] 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두 주의 운영 기록을 정리했다. 각 주의 이용자 전원에게 소음 때문에 불편했는지 한 번씩 물었고, 그 응답을 세었다. 두 주의 이용자는 서로 같지 않았다. 둘째 주에는 운영 방식과 함께 안내문도 바뀌었다.

항목	첫째 주	둘째 주
운영 방식	선착순	예약제
조용히 이용하라는 안내문	없음	새로 붙임
그 주의 이용자 수	20명	12명
소음 때문에 불편했다고 답한 이용자 수	8명	3명

[라] 민서는 "예약제만의 효과로 소음 불편이 줄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라고 말했다. 유진은 "불편했다고 답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맞아. 하지만 안내문도 새로 붙었고 이용자도 달랐어. 이 기록만으로 예약제 하나의 효과를 확정하기는 어려워."라고 말했다. 자치회는 예약제의 운영 비용과 기다린 시간도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운영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두 항목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13 **윗글 전체의 논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설문 응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② 학습실에 조용히 하라는 안내문을 붙일 것인가.
③ 예약제의 운영 비용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④ 학습실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14 **[라]에서 유진이 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불편 응답 인원이 감소했다는 기록 자체를 부정했다.

② 불편 응답 인원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예약제 하나로 단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③ 예약제는 어떤 경우에도 효과가 없다는 반례를 제시했다.

④ 운영 비용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예약제를 반대했다.

15 **[나]의 '응답자의 70%'에서 기준량(비율을 계산할 때 전체로 삼은 사람 수)을 숫자로 쓰세요.**

답 [ ] 명

16 **전체 학생의 예약제 찬반을 확인하려는 목적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추가 조사는?**

① 찬성한 14명에게 찬성하는 이유를 자세히 묻는다.

② 둘째 주에 학습실을 이용한 12명에게만 찬반을 다시 묻는다.

③ 응답하지 않은 60명에게도 같은 찬반 문항에 답을 받아 기존 응답과 합친다.

④ 이미 답한 20명의 응답을 다시 세어 70%가 맞는지 확인한다.

17 **[다]~[라]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① 둘째 주에는 첫째 주보다 소음 불편을 말한 인원이 적었다.

② 둘째 주의 소음 불편 감소는 예약제만의 효과이다.

③ 예약제의 운영 비용은 선착순보다 적었다.

④ 자치회는 예약제를 최종 운영 방식으로 확정했다.

18 **[나]~[라]를 근거로 ○·×·?를 쓰세요. ○ 글로 확인됨 · × 글과 어긋남 · ? 글만으로는 알 수 없음**

판단	기호
㉠ 전체 학생 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약제에 찬성한다.	
㉡ 설문에 답한 학생 가운데 찬성자는 반대자의 두 배가 넘는다.	
㉢ 자치회는 기다린 시간을 조사하여 예약제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묶음 4 전시 자료의 공개

용어 약속

용어	뜻
정의	말이나 대상의 뜻을 밝히는 설명
판단 기준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잣대
반례	어떤 주장이나 규칙이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
추정	단서를 바탕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함

연결 개념 독서03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 · 독서05 「관점과 논의」 · 독서07 「설명과 주장의 평가」 · 독서08 「선택지 판단과 새로운 사례 적용」.

질문 07 어떤 종류에 해당하면 전시 기준도 자동으로 만족하나요?

> **핵심 답** **무엇인지를 정하는 정의와, 전시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유로 보기

놀이공원의 '어린이용 놀이기구'라는 안내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지를 알려 줍니다. '키 110cm 이상'이라는 안내는 탈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어린이라도 키 기준에 못 미치면 탈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에 해당하는지'와 '허용되는지'를 따로 확인한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실제 기준이 몇 가지이고 무엇인지는 글이 정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이 행사에서 '소개 영상'은 동아리의 활동을 알리는 영상이다. 상영 기준은 2분 이내이고 자막이 있는 것이다. 별 모둠의 영상은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지만 3분이며 자막이 없다.

구조 보기

판단	적용할 내용	결과
소개 영상인가?	동아리의 활동을 알리는가?	해당함
상영 기준을 만족하는가?	2분 이내인가? 자막이 있는가?	만족하지 않음(2분 넘음·자막 없음)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 소개 영상이므로 행사에서 바로 상영할 수 있다.

바른 판단 '3분이며 자막이 없다'고 했으므로 소개 영상에 해당해도 상영 기준은 만족하지 않는다.

질문 08 반례 하나가 있으면 관련 주장이 모두 틀린 건가요?

> **핵심 답** **반례가 어긋나는 주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그렇다'와 '그런 경우가 있다'는 다릅니다.**

비유로 보기

팔찌의 구슬이 '모두 빨간색'이라는 말은 파란 구슬이 하나만 섞여 있어도 틀립니다. 그러나 파란 구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빨간 구슬이 있다'는 말까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는 '모두'와 '~인 것이 있다'가 반례 하나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실제 주장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는 지문의 표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가 주장: "접이식 의자는 모두 무겁다."
나 주장: "접이식 의자 중 무거운 것이 있다."
새 사례: 접이식 의자 A는 무겁지 않다.

구조 보기

주장	A의 사례가 반례인가?	이유
가	반례임	'모두 무겁다'에 맞지 않는 접이식 의자가 있음
나	반례 아님	'무거운 것이 있다'는 무거운 의자가 하나만 있어도 맞는 말임. 가벼운 A의 존재만으로 다른 무거운 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음

오해 바로잡기

흔한 오해 무겁지 않은 의자가 하나 있으므로 무거운 접이식 의자는 없다.

바른 판단 A 한 개의 사례는 '모두 무겁다'를 무너뜨리지만, 다른 접이식 의자의 무게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A가 나 주장의 반례가 아니라고 해서 나 주장이 맞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무거운 접이식 의자가 실제로 있는지는 이 예문만으로 알 수 없다.

지문 D · 정원 복원 그림

[가] 전시팀은 사라진 정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소개하려 한다. 이 전시에서 '복원 그림'은 남아 있는 사진이나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의 모습을 새로 그린 그림을 뜻한다. 옛 사진 원본을 그대로 내놓는 것은 복원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빈 부분을 추정하여 그릴 수도 있다.

[나] 전시팀은 복원 그림의 전시 기준을 두 가지로 정했다. 첫째, 그림에 사용한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밝혀야 한다. 둘째, 자료로 확인한 부분과 추정한 부분을 구별하여 표시해야 한다. 추정한 부분이 전혀 없는 그림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추정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시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다] 하윤은 "추정한 그림을 관람객이 사실로 받아들일까 걱정돼. 추정한 부분이 들어 있는 복원 그림은 모두 전시에서 빼자."라고 말했다. 수빈은 "그 걱정은 할 만해. 하지만 사용한 자료와 추정한 부분을 분명히 표시한다면,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더 알아봐야 하는지도 보여 줄 수 있어."라고 말했다.

[라] 전시팀의 복원 그림에는 정자와 꽃밭이 있다. 남아 있는 옛 사진에는 정자의 기둥만 보이고 지붕은 가려져 있다. 꽃밭을 보여 주는 자료는 없다. 그래서 그림 설명에는 기둥 모양은 확인된 내용, 지붕 모양과 꽃밭의 존재는 추정한 내용이라고 표시했다. 전시팀은 새 자료를 얻으면 그 자료가 실제로 알려 주는 부분부터 설명을 고치기로 했다.



19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복원 그림에서는 사용한 자료를 밝히고 확인한 부분과 추정한 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② 복원 그림에 추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전시할 수 없다.

③ 복원 그림은 옛 사진을 그대로 복사한 것만을 가리킨다.

④ 새 자료가 하나 생기면 그림의 모든 부분을 확인된 사실로 바꿔야 한다.

20 **[다]의 두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하윤과 수빈은 모두 추정한 부분을 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수빈은 관람객이 추정을 사실로 오해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다.

③ 하윤은 추정이 들어 있으면 제외하자고 하고, 수빈은 사용 자료와 추정한 부분을 분명히 표시하면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④ 하윤은 사용 자료를 공개하자고 하고, 수빈은 사용 자료를 공개하지 말자고 한다.

21 **[가]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 기호를 모두 쓰세요.**

㉠ 옛 사진과 공사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 정원을 새로 그렸지만, 사용한 자료를 밝히지 않은 그림

㉡ 보관함에서 꺼내 그대로 전시한 옛 사진 원본

㉢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 정자를 새로 그리면서, 기록이 없는 지붕은 추정하여 그린 그림

㉣ 자료 없이 상상만으로 그린 미래의 정원 그림

답 ____

22

주장

"복원 그림은 모두 추정한 부분을 확인된 사실처럼 보이게 한다."

이 주장의 반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추정한 지붕을 확인된 기둥과 똑같이 표시한 복원 그림 한 점

② 추정한 부분을 확인된 부분과 다른 무늬로 구별해 표시한 복원 그림

③ 추정 없이 그대로 전시한 옛 사진 원본

④ 추정한 부분을 사실처럼 표시한 복원 그림 세 점

23 **[가]의 복원 그림에 해당하면서 [나]의 전시 기준도 모두 만족하는 것은?**

① 옛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 그렸고 사용 자료를 밝혔지만, 추정한 부분도 모두 확인된 사실로 표시한 그림

②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 그렸고 추정한 부분을 구별했지만, 사용 자료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그림

③ 사용 자료의 목록 옆에 놓은 옛 사진 원본

④ 옛 사진과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 그렸고, 사용 자료와 확인·추정 부분을 모두 구별해 밝힌 그림

24

보기

전시팀이 그 정자를 지을 때 그린 도면을 새로 찾았다. 도면에는 정자의 기둥 배치와 지붕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 도면은 정자 건물만 그린 것이어서 정자 바깥은 그려져 있지 않다.

[라]에서 '추정한 내용'으로 표시한 것 가운데, 새 도면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골라 쓰세요.

고를 말 기둥 모양 | 지붕 모양 | 꽃밭의 존재

답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01	②	13	④
02	④	14	②
03	사진에 직접 보이는 모습 / 다른 기록을 연결하여 알아낸 내용	15	20명
04	①	16	③
05	③	17	①
06	㉠ ◯ · ㉡ ? · ㉢ ×	18	㉠ ? · ㉡ ◯ · ㉢ ×
07	③	19	①
08	X 일반 칸 · Y 예약 칸 · Z 검토대	20	③
09	①	21	㉠, ㉢
10	④	22	②
11	②	23	④
12	26초	24	지붕 모양

지문 A 근거 지도

사진의 정보와 근거

사진에 직접 보임	다른 기록으로 확인	아직 확인하지 못함
사진 가: 돌다리 [나]	**사진 가** 촬영 1998년 봄 [나] 받아 모음 2011년 3월 [나]	나의 촬영 시기 [나]
사진 나: 나무다리 [나]	**사진 나** 받아 모음 2003년 9월 [나]	두 사진이 같은 다리인지 [다]
		다리를 만든 순서 [다]·[라]

날짜가 있어도 무엇의 날짜인지 확인한다.

[다] 촬영 시기 확인 사진은 시간 순서대로, 미확인 사진은 별도 구역에 전시한다.

[나]·[다]·[라]는 지문의 근거 위치이다.

---

01 중심 내용

정답: ②. [가]의 '두 시기를 따로', [다]의 촬영 시기 확인 여부, [라]의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사진이라는 화제에 관해 글 전체가 강조하는 태도를 설명합니다.

오답 ① [다]는 다리의 재료만으로 촬영 순서를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료를 전시 순서의 기준으로 삼으면 글의 판단과 어긋납니다.

오답 ③ 받아 모은 시기가 확인되어도 촬영 시기는 모를 수 있습니다. 사진 나가 그 경우입니다.

오답 ④ [라]는 사진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건립 시기까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이 기록보다 언제나 정확하다는 판단도 없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화제와 중심 내용 · 부분과 전체 · 근거의 범위.

02 표의 정보

정답: ④. 사진 가의 촬영 시기는 1998년 봄이고 받아 모은 시기는 2011년 3월입니다. 같은 사진에서 두 사건의 시기를 견주면 촬영이 앞섭니다.

오답 ① 2003년 9월은 받아 모은 시기입니다. 촬영 시기는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오답 ② [다]는 같은 다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받아 모은 시기는 나가 2003년, 가가 2011년입니다. 들어온 순서를 거꾸로 읽었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대상과 정보의 대응 · 사실 확인.

03 지시어의 범위

정답: 사진에 직접 보이는 모습 / 다른 기록을 연결하여 알아낸 내용. [라] 첫 문장이 구별한 두 내용을 함께 받아 '이 구별'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다른 기록으로 알아낸 것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채점: 두 칸에 '직접 보이는 모습'과 '다른 기록(을 연결하여 알아낸 내용)'이 모두 들어가면 인정합니다. 순서는 무관합니다.

오답 분석: '나무로 되었다는 것 / 언제 만들어졌는지'만 쓰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 예시 문장의 개별 정보만 옮긴 답입니다. 질문 02에서처럼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는 그 예시를 아우르는 두 정보의 종류를 써야 합니다.

되돌아볼 개념: 지시어 · 예시와 일반적인 기준 · 문장 사이의 연결.

04 전체 전개

정답: ①. [가]에서 날짜의 혼동을 짚고, [나]의 표와 [다]의 관람객 판단으로 구별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라]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기록으로 알아낸 것을 나누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오답 ② 관람객의 촬영 순서 판단을 전시팀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견해를 일부씩 받아 합친 절충 방안이 아니므로 전개 방법을 잘못 짚었습니다.

오답 ③ 두 사진이 같은 다리인지도 모르므로 다리의 변화 순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진에 관한 정보의 구별을 다리 변화의 시간 순서로 바꾸었습니다.

오답 ④ 전시팀은 재료만으로 촬영 순서를 정하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사례의 역할 · 전체 전개 · 글쓴이가 한 일.

05 새 사례 적용

정답: ③. [다]는 촬영 시기를 확인한 사진만 시간 순서대로 놓고, 미확인 사진은 별도 구역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사진 다는 촬영 시기가 미확인이므로 후자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오답 ① 받아 모은 날짜와 촬영 날짜를 바꾸어 읽었습니다.

오답 ② 받은 순서를 촬영 순서로 바꾸었습니다. 늦게 받은 사진이 오래전에 찍힌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오답 ④ 같은 때 찍혔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리가 같은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조건과 사례의 대응 · 근거 부족.

06 세 가지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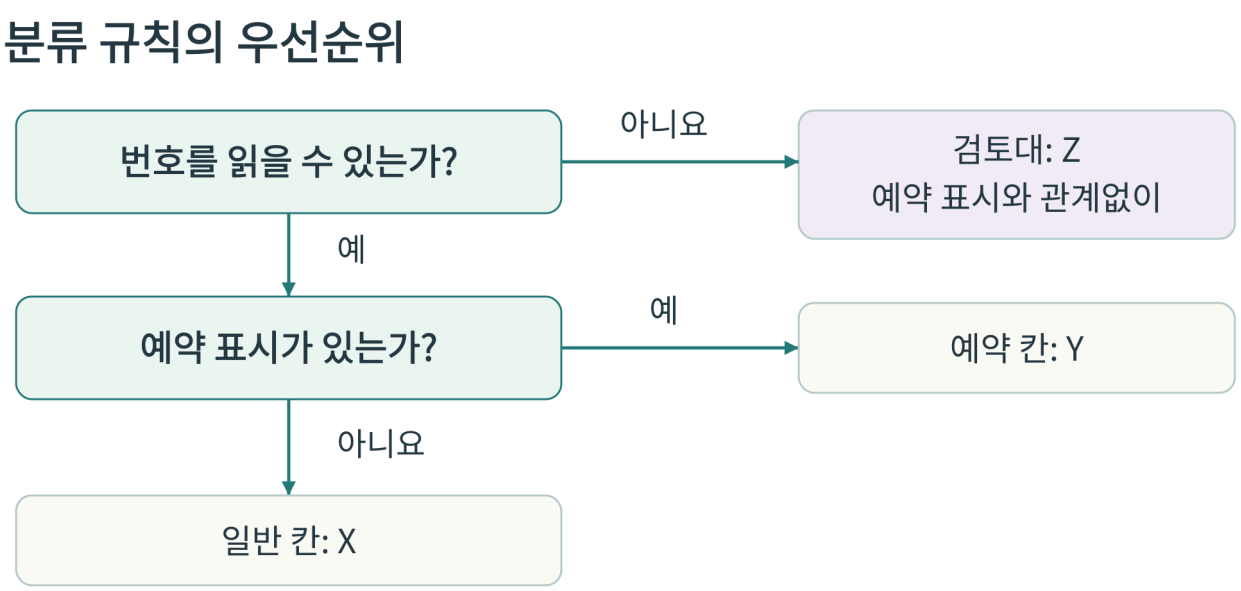
정답: ㉠ ○ · ㉡ ? · ㉢ ×.

판단	근거	이유
㉠ ○ · 글로 확인됨	[나] 가의 촬영 시기 1998년 봄 / [다] 촬영 시기를 확인한 사진만 시간 순서대로 전시	가는 촬영 시기가 확인되어 전시 기준에 해당함
㉡ ? · 글만으로는 알 수 없음	건립 시기 자료 없음	사진의 재료 차이만으로 건립 순서를 정할 수 없음
㉢ × · 글과 어긋남	'같은 다리를 찍었는지조차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했다'는 주장은 글과 어긋남

채점: 세 칸을 순서대로 ○·?·×로 쓴 답만 인정합니다. ㉡은 현실에서 먼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되돌아볼 개념: 어긋남과 알 수 없음의 구별 · 확인 행위와 실제 사실의 구별.

지문 B 근거 지도



→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

실제 이동 경로의 길이나 이동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다.

---

07 조건과 과정

정답: ③. [나]는 번호 판독 여부를 먼저 확인하며, 번호를 읽을 수 있을 때에만 예약 표시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와 도착 장소를 모두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오답 ① 두 조건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번호를 못 읽으면 예약 표시가 있어도 검토대로 갑니다.

오답 ② [가]는 사람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답 ④ [다]에 이동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직원의 확인 결과로 정했다는 과정은 없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과정 · 조건의 우선순위.

08 규칙의 적용

정답: X 일반 칸 · Y 예약 칸 · Z 검토대.

도구	먼저 확인한 내용	이어 확인할 내용	결과
X	번호를 읽을 수 있음	예약 표시 없음	일반 칸
Y	번호를 읽을 수 있음	예약 표시 있음	예약 칸
Z	번호를 읽을 수 없음	예약 표시가 있어도 경로는 이미 정해짐	검토대

채점: 세 칸에 각각 '일반 칸', '예약 칸', '검토대'를 씁니다. 띄어쓰기 차이는 인정합니다. Z를 예약 칸으로 쓰면 우선 적용 규칙을 놓친 것입니다.

되돌아볼 개념: 규칙과 사실의 연결 · 먼저 적용할 조건.

09 총시간

정답: ①. Z는 번호를 읽을 수 없으므로 검토대로 갑니다. 처리 시간은 판독 8초와 이동 6초를 더한 14초입니다.

오답 ② X의 이동은 12초이지만 판독 8초도 포함하므로 총 20초입니다.

오답 ③ Y의 이동은 20초이지만 판독 8초도 포함하므로 총 28초입니다.

오답 ④ X는 20초, Y는 28초이므로 같지 않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조건에 따른 경로 · 부분값과 전체값.

10 신호가 알려 주는 대상

정답: ④. [가]의 예약 표시는 예약 등록만 뜻하고, [라]의 감지 신호는 도구 W의 도착만 알립니다. 두 정보 모두 다음 이용자가 실제로 도착했는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오답 ① [나]에서 예약 칸에는 번호를 읽을 수 있고 예약 표시가 있는 도구만 갑니다. 이 규칙을 거꾸로 적용하면 W에 예약 표시가 있음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답이 아닙니다. 도착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오답 ② 번호를 읽지 못하면 검토대로 가므로 예약 칸에 도착한 W는 번호를 읽을 수 있었던 도구입니다. 규칙을 거꾸로 적용하여 확정할 수 있으므로 답이 아닙니다.

오답 ③ [라]가 신호의 대상을 도구의 도착으로 밝혔고 〈보기〉에 W의 도착과 신호 전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글로 확인되는 내용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되돌아볼 개념: 규칙을 거꾸로 적용 · 신호의 대상 · 예약과 실제 행동 · 부정 발문.

11 우선 적용할 규칙

정답: ②. [나]의 '예약 표시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토대로 보낸다'를 적용합니다. [가]는 '장치는 사람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약 표시나 이용자가 기다린다는 사실은 번호를 읽지 못한 V의 처리 규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답 ① 사람의 도착을 장치의 판단 조건으로 끼워 넣고, 우선 조건인 번호 판독 여부를 빠뜨렸습니다.

오답 ③ [나]는 번호를 읽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토와 폐기를 바꾸어 읽었습니다.

오답 ④ 예약 표시가 없을 때 일반 칸으로 보내는 것은 번호를 읽을 수 있을 때의 규칙입니다. 앞의 적용 조건을 빠뜨렸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조건 유지 · 판단 주체 · 새로운 사례 적용.

12 조건을 바꾼 연속 처리

정답: 26초. X는 일반 칸으로 가므로 4+12=16초, Z는 검토대로 가므로 4+6=10초입니다. [라]에 따라 X가 도착하면 곧바로 Z의 판독을 시작하므로 16+10=26초입니다. 새 장치의 실제 성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보기〉의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원래 판독 시간 8초로 계산하면 X 20초와 Z 14초를 합해 34초입니다. 도구마다 4초씩 두 번 줄어 모두 8초가 줄었습니다. 질문 04에서 본 '다른 시간이 그대로이고 차례로 진행되면 줄어든 만큼 총시간도 준다'는 관계가 적용됩니다.

채점: 26 또는 26초를 인정합니다. 16(X만), 10(Z만), 34(판독 8초로 계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가정과 실제 · 연속 처리 · 변한 조건과 그대로인 조건.

지문 C 근거 지도

자료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로 확정할 수 없는 것
20명의 온라인 응답	응답자 중 찬성 14명, 70%	미응답 60명의 찬반
추가 조사 계획	비용·대기 시간을 조사하기로 함	비용·대기 시간이 이미 줄었다는 결과

함께 바뀐 조건과 확인한 결과

함께 바뀐 조건

조건	첫째 주	둘째 주
운영 방식	선착순	예약제
안내문	없음	새로 붙임
이용자	20명	12명 (구성도 다름)

확인된 결과

불편 응답 인원

첫째 주	둘째 주
8명	**3명**

◯ **인원이 줄었음**

아직 남은 판단

예약제 하나만의 효과인가?

? 이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음

괄호와 선: 여러 조건이 함께 바뀐 상황을 묶음(인과 화살표가 아님).

◯ **글로 확인됨 · ? 글만으로는 알 수 없음**

---

13 쟁점

정답: ④. [가]의 제안과 반대, [나]의 찬반 조사, [다]의 운영 기록, [라]의 추가 조사는 모두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오답 ① 설문은 예약제 찬반을 알아보는 자료입니다.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은 글 전체의 쟁점이 아닙니다. 일부 자료를 전체 논의로 넓혔습니다.

오답 ② 안내문은 시범 운영에서 함께 바뀐 조건입니다. 이 조건 하나의 도입 여부를 글 전체의 쟁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답 ③ 운영 비용은 최종 판단 전에 추가로 조사할 한 항목입니다. 논의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글 전체의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글 전체의 중심 논의 · 쟁점과 관련 정보의 구별.

14 부분 수용과 판단 제한

정답: ②. 유진은 '인원이 줄어든 것은 맞아'라고 결과를 인정합니다. 이어 안내문과 이용자도 달라졌다는 근거로 '예약제 하나의 효과'라고 단정하는 데 반대합니다. 이 기록은 그 결론의 근거로는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오답 ① 유진은 감소 기록을 인정했습니다.

오답 ③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예약제가 언제나 효과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를 부정하는 반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답 ④ 비용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비용 증가라는 결과를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인정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 · 근거와 결론.

---

15 기준량

정답: 20명. 실제 조사 대상인 응답자 20명이 기준량이고, 비교하는 양은 찬성자 14명입니다. $14 \div 20 \times 100 = 70\%$이며, 전체 학생 80명을 기준량으로 계산한 비율이 아닙니다.

채점: 숫자 20을 씁니다. '20명'도 인정합니다. 14는 찬성자 수, 80은 전체 학생 수로 물음의 대상과 다릅니다.

되돌아볼 개념: 조사 대상 · 기준량.

---

16 목적에 맞는 추가 자료

정답: ③. 현재 모르는 것은 미응답자 60명의 찬반입니다. 실제 조사 대상이었던 20명에 더해, 같은 문항으로 나머지 60명의 응답도 받으면 전체 80명의 찬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① 찬성 이유를 자세히 알아도 미응답자의 찬반은 알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오답 ② 둘째 주 이용자 12명만으로 전체 학생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 범위를 또 다른 일부 집단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답 ④ 기준량 20명으로 계산한 70%를 다시 확인해도 나머지 60명의 의견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의 정확성과 조사 범위를 혼동했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조사 대상 · 기준량 · 목적에 맞는 근거.

17 결과와 계획

정답: ①. 표에서 불편 응답 인원은 첫째 주 8명, 둘째 주 3명입니다. 해당 기록의 인원 감소는 확인됩니다.

오답 ② 안내문과 이용자도 달라졌으므로 특정 운영 방식만의 효과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예약제 하나의 효과'라는 결론의 근거로는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오답 ③ 비용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모릅니다.

오답 ④ 추가 조사 '뒤' 최종 방식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확정했다는 말은 제시된 단계와 어긋납니다.

되돌아볼 개념: 확인한 결과 · 인과 판단의 범위 · 제안과 실행.

18 판정의 구별

정답: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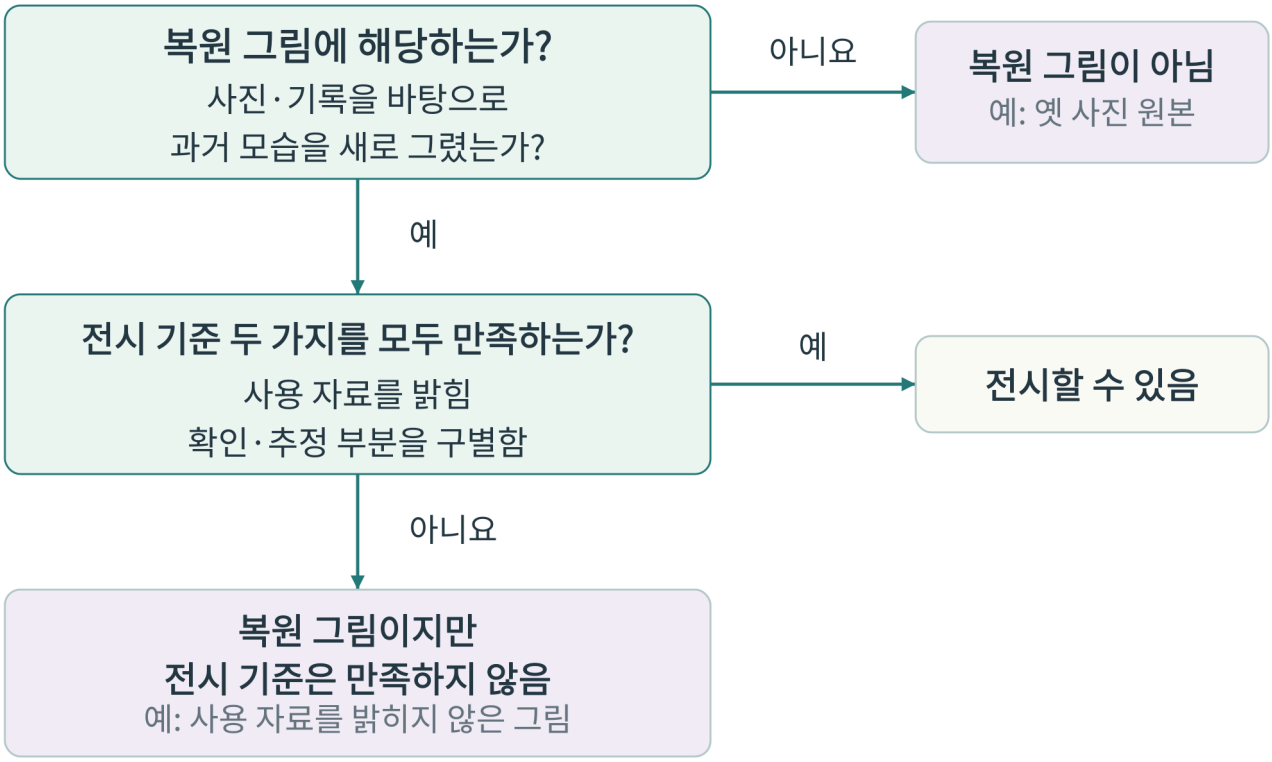
판단	근거	이유
㉠ ? · 글만으로는 알 수 없음	확인된 찬성 14명, 미응답 60명	기준량이 전체 80명이므로 절반은 40명임. 60명의 찬반을 몰라 찬성자가 40명 이상인지 확정할 수 없음
㉡ ◯ · 글로 확인됨	찬성 14명, 반대 6명	응답자 가운데 14명은 6×2=12명보다 많음
㉢ × · 글과 어긋남	[라] '두 항목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기다린 시간을 조사하여 감소를 확인했다는 말은 글과 어긋남

채점: 순서대로 ?·◯·×를 모두 맞힌 답만 인정합니다. ㉠의 ?는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찬성할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되돌아볼 개념: 기준량 · 자료의 범위 · 조사 계획과 확인된 사실.

지문 D 근거 지도

정의와 전시 기준을 따로 확인



→ 판단하는 순서(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아님)

추정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19 중심 내용

정답: ①. [가]가 복원 그림의 뜻을 밝히고, [나]가 자료 공개와 확인·추정 구별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의 관점 차이와 [라]의 사례도 그 기준이 필요한 까닭을 보여 줍니다.

오답 ② [나]는 추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윤의 주장만을 글 전체의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답 ③ [가]는 과거 모습을 '새로 그린 그림'이라고 정의하고 옛 사진 원본과 구별했습니다.

오답 ④ [라]는 새 자료가 '실제로 알려 주는 부분부터' 고친다고 했습니다. 한 부분의 근거를 전체로 넓힐 수 없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중심 내용 · 글 속 인물의 의견과 제시된 기준.

20 관점 대조

정답: ③. 하윤은 추정이 들어 있으면 모두 빼자고 합니다. 수빈은 오해에 대한 걱정을 인정하면서도 자료와 추정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는 앎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답 ① 두 사람 모두 추정을 숨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빈은 분명히 표시하자고 합니다.

오답 ② 수빈은 '그 걱정은 할 만해'라고 오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오답 ④ 하윤의 주장은 추정이 들어 있는 그림의 제외이며, 수빈은 사용 자료를 밝히자는 입장입니다.

되돌아볼 개념: 관점의 차이 · 일부 수용과 보완.

21 정의 적용

정답: ㉠, ㉢. 두 사례 모두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모습을 새로 그린 그림입니다. ㉠은 사용 자료를 밝히라는 전시 기준은 어겼지만 정의에는 해당합니다. ㉢은 추정한 부분이 있어도 [가] 마지막 문장에 따라 정의에 해당합니다.

㉡ 은 새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옛 사진 원본입니다. ㉣에는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와 '과거의 모습'이라는 정의의 조건이 모두 없습니다.

채점: ㉠·㉢을 모두 쓰고 ㉡·㉣은 쓰지 않은 답만 인정합니다. 순서는 무관합니다.

되돌아볼 개념: 정의의 조건 · 정의와 평가 기준의 구별.

22 반례

정답: ②. '모두 추정한 부분을 확인된 사실처럼 보이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추정한 부분을 다른 무늬로 구별해 표시한 복원 그림은 반례가 됩니다. 추정을 확인된 사실과 구별하여 제시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답 ① 추정과 확인을 똑같이 표시했으므로 제시된 주장에 들어맞는 사례입니다. 주장에 맞는 사례와 반례를 뒤바꾸었습니다.

오답 ③ 옛 사진 원본은 복원 그림이 아닙니다. 반례가 되려면 주장의 대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답 ④ 주장에 들어맞는 사례가 세 점이라는 말입니다. 사례 수가 많아져도 주장에 어긋나는 반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모두'의 범위 · 반례의 대상과 조건.

23 정의와 기준의 결합

정답: ④. 과거 모습을 자료에 근거해 새로 그렸으므로 정의에 해당합니다. 사용 자료를 밝히고 확인·추정 부분도 구별했으므로 전시 기준 두 가지도 만족합니다.

오답 ① 추정을 확인된 사실로 표시하여 두 부분을 구별하라는 기준을 어겼습니다.

오답 ② 구별 표시는 있지만 사용 자료를 밝히라는 기준이 빠졌습니다.

오답 ③ 자료 목록이 있어도 사진 원본은 '새로 그린 그림'이 아니므로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여러 조건의 결합 · 판단 대상 유지.

24 새 근거의 적용 범위

정답: 지붕 모양. [라]에서 추정한 내용으로 표시했던 지붕 모양이 새 도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둥 모양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므로 추정에서 확인으로 바꿀 대상이 아닙니다. 도면은 정자 건물만 그렸으므로 정자 바깥 꽃밭의 존재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꽃밭이 그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꽃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채점: '지붕 모양'만 쓴 답을 인정합니다. 다른 항목을 함께 쓰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 근거의 적용 범위

도면이 알려 주는 범위: 정자 건물만

항목	새 도면을 찾기 전	새 도면을 찾은 뒤
기둥 모양	확인	확인(그대로)
지붕 모양	**추정**	**확인(새로 바뀜)**
꽃밭의 존재	추정	추정(그대로)

지붕 모양만 추정에서 확인으로 바꾼다.
도면 밖의 꽃밭이 실제로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되돌아볼 개념: 근거가 뒷받침하는 범위 · 판단의 수정.